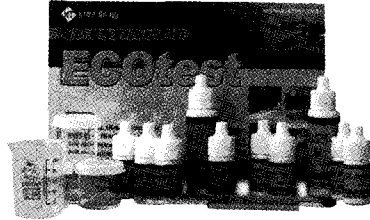


연합회

에코테스트 전국대리점 모집



연합회는(회장 이상호)는 지난 2월부터 공급에 나선 방류수 수질측정 키트인 '에코테스트'가 사용자들의 좋은 반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기 위해 전국적인 대리점을 모집한다.

그동안의 수요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저렴하고 간편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앞으로의 공급확대가 기대된다.

에코테스트 대리점 모집은 전국 5만여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판매하게 되며, 마진율은 30~35%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이(KIST) 개발한 에코테스트는 질소, 인, COD의 자유로운 측정이 가능하며 전세계의 어떠한 제품보다도 탁월함이 증명되었다.

국가가 공인(국산신기술(KT)인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검증)한 에코테스트 방류수 수질측정 키트는 연합회가 총판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공급에 들어갔다. 대리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조성환 이사(016-624-9873, (02)852-2291).

5월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실시

- 생물학적 하·폐수 및 악취·VOC처리 현장실무교육 실시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5월 14일에서 16일, 5월 19일에서 21일까지 각 3일간 두 차례에 걸쳐 환경기술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올들어 4차 교육인 생물학적 하·폐수처리 실무기술에는 20여명이 참석해 생물학적 하·폐수처리 원리 및 기본처리 공정과 별강대책 등 이문호 소장, 오재식 기술사, 김덕치 부이사장 등의 강사진이 최근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5차 교육인 악취·VOC 저감 현장실무 기술 교육에는 10여명이 참석해 악취와 VOC전반에 대한 원리 및 특징, 처리 실무기술에 대해 차진명 박사, 이석조 부장, 박범수 전무 등이 현장문제점 분석 및 대책수립에 맞춘 교육으로 현장 환경기술인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상반기 마지막 교육으로 최신 고도처리 및 질소·인 최신 실무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촉구

연합회는 지난 5월 1일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수도권권 지역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다수 설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촉구했다.

연합회장동정

산업폐수관리체계 연구회 운영회의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5월 1일 환경부 수질보전국 주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최한 '수질폐수관리체계연구회' 운영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선방향'과 '질소인 배출허용기준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친절한 환경공무원상' 심사

이상호 회장은 지난 5월 12일 저녁 7시 팔래스호텔에서 환경관리연구소가 제정한 '친절한 환경공무원상' 심사에 참석했다. 이날 심사에는 김형철 전 환경부차관외 5인이 참석해 심사를 실시했다.

군부대 환경보전 교육 실시

이상호 회장은 지난 4월 16일에 이어 5월 15일 파주군에 위치한 군부대를 방문, 군장병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 장병들 대상으로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홈닥터 제도 운영개선 방안' 워크샵에서 기조강연

이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주최한 '기업환경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홈닥터 전체 워크샵'에서 '환경홈닥터 제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기조강연을 가졌다. 이 워크샵에서 이 회장은 그간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기술지원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합회를 비롯한 지역협의회와의 공동 수행체제를 강조했다.

서울협의회

임원수련회 실시

서울협의회는 5월 3일 안양천에서 임원수련회를 실시하였다.

협의회 임원들 전체가 모여, 병원팀, 인쇄 공장, 전자회사등으로 나뉘어 족구 시합을 한 후에, 안양천변의 휴지와 비닐등을 500kg 정도 수거하였다.



상반기지도 점검 방향 설명회 개최

서울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공단내 키콕스 벤처 센터 3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지도 점검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연합회동정

구로 디지털 산업 단지 공단 총무회와 같이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환경기술인 120여 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이귀향 회장의 협의회 안내와 구로구청 환경과 지도계 조현태 계장의 향후 단속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병원, 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적출물과, 도금, 도장공장 등의 영세 사업장에서의 지정폐기물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 대상임을 알렸다.



경기도협의회

유해화학물질 적발사례 및 수질분석 교육

경기도협의회(회장 이성호)는 지난 지난 4월 24일 목요일 수원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적발사례 및 수질분석 교육을 실시하였다.

환경관계자 및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경기도 공단환경담당 양정모 사무관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적발사례'에, (주)엔바이오이엔지 구영환 대표이사가 '폐수의 신분석 방법과 생물학적처리 효율 증진'에 대해 각각 자세하게 설명해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이어 '현장방류수 수질측정기기(제품명 에코테스트)'에 대해 (주)테크로스 이강평 대표이사가 국산제품이며 정확한 측정기트에 대해 설명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수업체 벤치마킹

경기도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 목요일 회원 및 환경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친화적 기업을 구축하고 있는 전북 전주소재 판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와 군산소재 (주)두산주류BG의 폐수처리장과 생산공정 현장 등을 각각 견학했다.

이와 함께 두산주류에서는 주류시음회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간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환경시설 및 모범적인 환경기술에 관한 시설을 견학하여 신기술, 신공법 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기술인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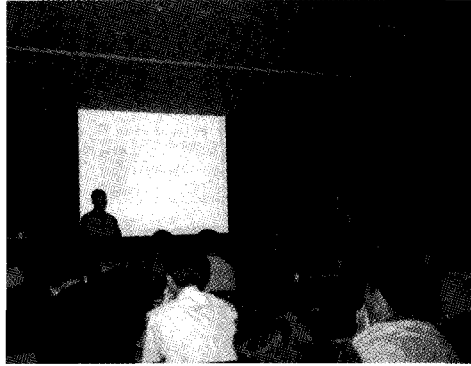
대전충남협의회

환경개선 사례 발표 및 T-N대책 세미나 개최

대전충남협의회(회장 김금중)는 지난 4월 17일 한국타이어(주) 금산공장에서 환경개선사례 발표 및 산업폐수의 T-N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원사 환경기술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개선 사례의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질소·인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규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이어 우수 수처리시설 및 생산 현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다.



경남협의회

지도점검 방향 및 신기술 소개 세미나 개최

경남협의회(회장 황수남)는 지난 4월 23일 한국공단동남종합전시장에서 경남도 지도점검 방향 설명회 및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원 및 환경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서규태 교수의 '막분리에 의한 폐수재이용' 과, 신홍TSC 최창준 대표가 '활성탄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신기술을 소개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경남도 수질개선과 수질담당 전수광 사무관의 지도점검 방향 및 수질환경법 해설을 실시해 업무이해를 도왔다. 특히 전 사무관은 '환경관리를 위해 한 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간 신뢰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황 회장은 환경관리인 직무교육 시간에는 지도점검 예고제 실시 및 지도점검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간추려 건의키로 하는 등 회원들간 열띤 토론을 가지기도 했다.

황 회장은 간추려진 건의사항을 집약해 연합회를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협의회는 지난 4월 3일 마산운동장에서 개최된 물의 해 기념 환경보전 캠페인에(마산시, 마산대학 주최, 지구환경보존운동 경남본부 주관)에 참여해 마산시내 광려천 청소를 함께 실시했다. ◀